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	**보도자료**	www.motie.go.kr
2013년 3월 2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조영신 창의산업정책과(2110-4754) 박우진 주무관(4776)		

이러닝산업 규모 지속 성장, 지난해 두자리 수 성장

- 2012년 이러닝산업 총 매출액 전년대비 12% 상승한 2.7조원 기록 -
- 모바일러닝 경험자 비율도 30%로 전년대비 12%p 상승 -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「2012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」를 실시해 이러닝 업계 현황 및 이러닝 활용률 등을 파악

* '이러닝(e-learning)'이란 전자적 수단 및 IT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

□ **(공급)** '12년 이러닝산업 총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, 총 사업자수는 감소해 이러닝 기업당 평균 매출액 확대

○ (사업자수) 이러닝 사업자 수는 1,614개로 전년대비 2.5% 감소, 서비스 분야 사업자 수 감소('11년 1,114개 → '12년 1,052개)에 기인

○ (매출액) 이러닝산업 총 매출액은 서비스분야 매출 신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2.1% 증가한 2조 7,478억원 기록,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7억원으로 전년대비 15% 상승

□ **(수요)** 개인의 이러닝 도입률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이러닝은 확산된 반면, 중소기업 이러닝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

○ (개인) 만 3세 이상 국민의 53.3%(전년比 0.5%p↑)가 이러닝 경험이 있으며, 모바일 러닝 경험 비율은 30.2%로 전년대비 11.8%p 상승

○ (기업) 대기업 이러닝 도입률은 65.3%인 반면, 중소기업은 4.2%에 불과

○ (기관)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률은 85.9%로 전년대비 3.6%p 증가, 정부/공공기관의 도입률은 77.3%로 전년대비 1.6%p 감소

□ **(정책방향)**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중 이러닝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(문화부 협의) 및 이러닝 이용표준약관을 제정·보급하는 한편,

○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러닝 중소기업 입주지원, 기술개발, 중소기업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 개발·확산 등 사업 추진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원장 : 박수용)은 국내 이러닝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12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*」 결과를 발표

*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근거하여 '05년부터 매년 조사·발표

○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닝 산업 총 매출액 확대와 더불어 그간 감소세에 있던 기업당 이러닝 평균 매출액도 상승세로 전환,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이러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

1. 이러닝 공급부문 현황

1 **(사업자수)** '12년 이러닝 사업자 수는 1,614개로 전년대비 2.5% 감소

○ 사업분야별 비중은 서비스사업자가 전체의 65.2%(1,052개), 콘텐츠 사업자가 23.2%(375개), 솔루션 사업자가 11.6%(187개) 차지

* 분야별 사업자수 증감률(전년比, %) : (서비스)△5.6, (콘텐츠)1.9, (솔루션)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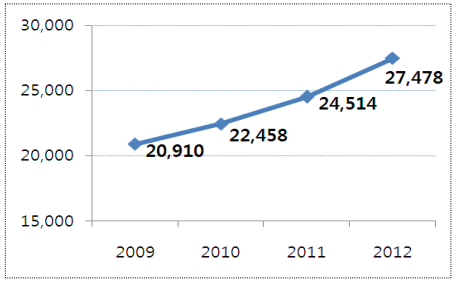
2 **(매출액)** 사업자수는 감소한 반면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12.1% 증가한 2조 7,478억원,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15% 증가한 17억원

○ (분야별) 총 매출액 2조 7,478억원 중에서 각 사업분야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 72.6%, 콘텐츠 18.8%, 솔루션 8.6% 순

* 분야별 매출액 증감률(전년比, %) : (서비스)18.9, (콘텐츠)△4.2, (솔루션)0.6

○ (규모별) 매출액 1억 미만의 영세 사업자가 859개로 전체 사업자의 53.2%(전년比 1.8%p 감소) 차지,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%에 불과

<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 (억원) >



< 분야별 시장규모 및 구성비 (억원, %) >

분야	매출규모	증감률 (전년比)	구성비
서비스	19,956	18.9	72.6
콘텐츠	5,155	△4.2	18.8
솔루션	2,366	0.6	8.6
합계	27,478	12.1	100.0

3 **(인력)** 이러닝산업 인력 수는 전년대비 0.9% 감소한 24,957명

○ 직무별 인력구성비는 서비스운영자 27.4%, 콘텐츠개발자 20.6%, 시스템개발자 23.1%, 내용전문가 16.8%, 기획컨설턴트 7.5%, 교수설계자 4.4% 순

* 직무별 인력구성비 증감(전년比, %p) : (서비스운영자)1.3, (콘텐츠개발자)△2.5, (시스템개발자)2.4, (내용전문가)5.2, (기획컨설턴트)△1.3, (교수설계자)△1.4

○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이러닝 사업자는 33.5%로 전년대비 9.8%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상당 수 사업자가 전문 인력 확보에 애로

4 **(시사점)** 서비스 사업자수 감소(전년比 5.6%)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크게 증가(18.9%)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중인 것으로 분석됨

○ 반면 콘텐츠, 솔루션 분야 사업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 신장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기업당 매출이 증가한 서비스 분야와의 균형있는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
2. 이러닝 수요부문 현황

1 **(개인이용률)** '12년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 3세 이상 국민의 이러닝 이용률은 53.3%로 전년대비 0.5%p 상승

* 최근 3년간 이러닝 이용률 변화(%) : ('10)49 → ('11)52.8 → ('12)53.3

○ (연령별) 연령별 이용률은 8~19세가 79.7%로 가장 높으며, 20대 71.7%, 30대 49.6%, 3~7세 43.2%, 40대 42.3%, 50대이상 30.2% 순

* 연령대별 이러닝 이용률 증감(전년比, %p) : (8~19세)5.2, (20대)3.8, (30대)4.7, (3~7세)4.7, (40대)0.7, (50대이상)4.3

○ (분야별) 주요 이용 분야는 외국어 39.1%, 초중고 교과과정 27.6%, 자격 22.1%, 직무 16.6%, 정보기술 10.4%, 유아/미취학 교육 10% 순(중복응답)

* 분야별 이용률 증감(전년比, %p) : (외국어)△0.4, (초중고)△5.5, (자격)1.4, (직무)△1.5, (정보기술)0.2, (유아/미취학)2.8

○ (모바일러닝) 모바일러닝 경험률은 30.2%로 전년대비 11.8%p 상승, 모바일러닝 확산시 필요사항으로 '콘텐츠 다양성'에 최다 응답(중복응답)

* 모바일러닝 확산시 필요사항 : 콘텐츠 다양성(34.6%), 교육 보조금(34.1%), 디바이스 가격인하(22.6%), 모바일러닝 학점인정(8.3%) 등

2 **(사업체이용률)**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5.4%로 전년대비 1.2%p 증가

○ (규모별)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전년대비 2.3%p 상승한 65.3%이나, 300인 미만 사업체는 4.2%로 0.1%p 상승하는데 그침

○ (업종별) 금융 및 보험업(30.9%),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업(26.6%)의 도입률은 높은 반면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광업 및 제조업, 운수업의 도입률은 2~3.5%로 저조

○ (분야별) 주로 직무(53.1%), 외국어(14%), 정보기술(7.5%) 등에 활용

3 **(기관이용률)** 정규교육기관 이러닝 도입률은 85.9%로 전년대비 3.6%p 증가한 반면, 정부/공공기관의 도입률은 77.3%로 전년대비 1.6%p 감소

○ (교육기관) 초등학교 92.4%, 중학교 82.9%, 4년제 대학 80.5%, 인문계 고교 78.5%, 전문대학 69.1%, 전문계 고교 60.4% 순

* 교육기관별 이용률 증감(전년比, %p) : (초등학교)3.1, (중학교)3, (4년제 대학)1.2, (인문계 고교)4.9, (전문대학)2.9, (전문계 고교)2.2

○ (정부·공공기관) 중앙정부기관, 교육청, 광역지자체의 도입률은 100%이며, 기초지자체 88.2%, 지방공단 83.3%, 지방공사 72.7%, 기타공공기관 63.3% 순

* 정부·공공기관별 이용률 증감(전년比, %p) : (중앙정부기관, 교육청, 광역지자체)0, (기초지자체)0.4, (지방공단)△1.7, (기타공공기관)△3.4

4 **(시사점)** 개인의 이러닝 도입률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나, 모바일러닝 경험률은 30.2%로 크게 증가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이러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

○ 정부·공공기관,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률은 70~80%대로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반면, 중소기업은 아직 4.2%로 매우 저조하며 대기업과의 격차도 심화

3. 정책방향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이러닝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 마련 및 이러닝 이용 수요 견인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

○ (공급) 이러닝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'이러닝 콘텐츠 용역개발 표준계약서'를 제정·보급 추진

- 또한 지난 12월에 개소한 「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」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입주 및 장비활용, 해외시장 진출, 기술 개발 등의 지원사업 추진

○ (수요) 중소기업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·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, 이러닝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'이러닝 이용 표준약관'을 마련할 계획

< 참고 : 조사개요 >

○ 표본 설계 : 공급부문(콘텐츠, 솔루션, 서비스), 수요부문(개인, 사업체, 정규교육기관, 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 구분해 표본 설계

– 공급부문 : 모집단 1,614개사 중 358개

– 수요부문 : 개인 2,000명, 사업체 7,062개, 정규교육기관 700개, 정부·공공기관 179개

○ 표본 허용오차

– 공급부문 : ±5% (95% 신뢰수준)

– 수요부문 : 개인 ±3%, 사업체 ±5%, 정규교육기관 ±5%, 정부 및 공공기관 5% (95% 신뢰수준)

○ 조사기간 : 2011.9.1~12.31

○ 조사방식 : 전화, 팩스 및 이메일